

#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I)

진주전문대학  
강사 박운미  
경상대학교 외류학과  
교수 정복남

## 目 次

I. 序論	3. 紋樣의 種類
II. 佛腹藏 織物의 意義와 構成	IV. 結論
III. 佛腹藏 織物의 考察	참고문헌
1. 時代別 織物의 考察	ABSTRACT
2. 織物의 組織 및 種類	

## I. 序論

고대 문현상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직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실물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 직물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문현뿐만 아니라 실물을 중심으로 한 직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탑이나 불상, 혹은 분묘에서 의류를 포함한 직물류가 상당수 발견되어지므로 문현상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製織 기술이나 직물들을 파악하는 직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佛腹藏 織物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安明淑의 〈文殊寺 遺物 袍와 직물에 관한 연구<sup>1)</sup>와 柳喜卿의

〈1302年 阿彌陀佛腹藏 服飾의 樣式과 特性〉,<sup>2)</sup> 金美子, 趙孝淑의 〈1302年 阿彌陀佛腹藏 織物의 分析〉,<sup>3)</sup> 조효숙의 〈韓國 絹織物 研究<sup>4)</sup> 그리고 金英淑의 〈朝鮮朝 前期 織物의 한 樣相<sup>5)</sup>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腹藏의 의의와 구성을 살펴봄으로서 불복장 직물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유물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유물의 조직, 밀도, 직물의 폭, 문양 등을 고찰한 후 선행논문이나 문현 등을 참고로 하여 유물의 명칭과 조직의 특성, 문양의 종류를 규명한다.

연구의 범위로는 불복장 직물에 나타난 조선시대 직물로 정하였으며, 조선시대 직물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고려시대의 직물에 관한 문현과 논문을 비교·고찰하였다.

- 1) 安明淑, 〈文殊寺 遺物 袍와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2) 柳喜卿,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 服飾의 樣式과 特性〉,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3) 金美子·趙孝淑, 〈1302年 阿彌陀佛腹藏 織物의 分析〉,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4) 趙孝淑, 〈韓國 絹織物 研究—高麗時代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 5) 金英淑, 〈朝鮮朝 前期 織物의 한 樣相〉, 《문화재》27호, 文化財研究所, 1994

연구의 방법으로는 실물자료와 복식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유물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밀도경을 사용하였고, 직물의 조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배 확대경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는데, 조직을 15배, 20배, 25배, 30배로 확대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명시된 유물의 명칭은 古文獻들을 참고로 하여 색상, 문양, 직물 종류의 순서로 정하였으며, 유물 색상의 명칭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sup>6)</sup>을 따랐다.

본 논문에서는 경북대학교의 남권희 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복장직물을 실제로 조사하였는데, 조사한 직물을 발원문의 기록에 의하여 시대별로 구분하면 1431년대의 직물이 27점, 1550년대의 직물이 20점, 1664년대의 직물이 9점, 1735년대의 직물이 6점으로 총 62점이며, 육안으로 직물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유물의 상태가 대부분 좋았다. 그러나 후반기로 내려올수록 유물의 수가 적어지므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직물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본 논문을 계기로 조선시대의 직물에 관한 다각적인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II. 佛腹藏織物의 意義와 構成

腹藏이란 두 가지의 뜻을 갖는데, 하나는 불상이나 탑 등의 腹部속에 불교적인 상징성을 띤 물품을 넣는 행위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때 넣는 상징적 물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상에 하는 복장을 특별히 佛腹藏이라 칭한다.<sup>7)</sup>

불상이나 불화 등에 언제부터 복장물을 넣게 되

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內院寺의 新羅石佛에서 복장을 시설하는 용기가 발견되어서 신라시대부터 복장불을 넣었다고 본다.<sup>8)</sup>

불상이나 탑에 복장 할 때에는 대부분 조성연대가 확실한 發願文이 들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불에도 발원자명 및 발원연도가 묵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물이 직조된 시기나 사용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의 직물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복장물 속에는 직물류가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탑에서 발견된 직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물인 불국사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다수의 線, 羅이다.<sup>9)</sup> 그리고 고려시대의 탑 중에서도 4곳에서 직불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불상에서 발견된 직물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02년대에 조성된 阿彌陀佛에서 출현한 것이며, 이 아미타불과 1346년에 조성된 서산 文殊寺의 金銅如來坐像에서는 의복도 발견되었다. 또한 최근에 해인사의 금동비로자나불에서 여덟 점의 의복과 紬가 한 점 발견되어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복식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sup>10)</sup>

불상 조성 시에 불상에 넣는 불복장물에 관한 구성과 불복장 의식의 절차 등에 관한 기록으로는 《觀想儀軌》와 《造像經》이 있는데, 《觀想儀軌》는 1677년 전라도 八影山 방가사에서 간행한 것이며 《造像經》은 1821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판각한 것이다.<sup>11)</sup>

《觀想儀軌》와 《造像經》에 의하면 복장물은 크게 후령통과 이를 싸는 황초보자기의 두 부분으로

6)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2차 시안-, 1992

7) 裴永東, 〈佛腹藏儀式의 構成과 意味〉,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은양민속박물관 1991, p.211

8) 박경원, 정원경, 〈永泰二年 銘蠟石製壺〉, 釜山市立博物館 年報 제6집, 1983

9) 文化財管理局, 〈佛國寺 復原 工事 報告書〉, 文化財研究所編, 1976

10) 權瑛淑,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p.199

11) 裴永東, 〈佛腹藏儀式의 構成과 意味〉, 앞의 책, p.213

〈표 1〉 五方位에 따른 복장물

	東	南	西	北	中
五色線	青線	紅線	白線	黑線	黃線
五輪種子	青	紅	白	黑	黃
眞心種子	青	紅	白	黑	黃
五鏡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五色綵幡	青綵幡	紅綵幡	白綵幡	黑綵幡	黃綵幡
五帛杵	青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黃帛杵
五傘蓋	青蓋	紅蓋	白蓋(紅蓋)	黑蓋(綠蓋)	黃蓋(白蓋)
五菩提樹葉	香樹葉	欒樹葉	夜合樹葉	梧桐葉	櫟樹葉

나눌 수 있다. 후령통의 내부에는 복장의 핵심이 되는 65가지의 상징물을 담는 五寶瓶이 들어가게 되는데, 후령통 안에는 총 75가지의 표시와 불질을 중앙과 사방을 합쳐 5방위에 배치하고 뚜껑을 닫은 다음 황초보자기로 싸며, 통과 황초보자기 사이에 발원문과 주문을 넣는다.<sup>12)</sup>

복장불은 대개는 五方位에 의해 구성되나, 四方呪, 八葉大紅蓮呪, 후령통은 4방위에 따라 구성되며 이외에도 방위를 따르지 않고 봉안되는 頑文, 黃綃幅子, 一切如來全身舍利寶僕眞言, 生飯등이 있다. 이 총 직물과 관련된 복장불을 五方位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II. 佛腹藏織物의 考察

#### 1. 時代別 織物의 考察

##### 1) 1431년대의 직물

이 직물과 함께 복장 되었던 願文에 ‘宣德6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 13년으로 1431년을 뜻한다. 여기에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보자기 4점 등 총 27점으로 모두 다 緺이다. 이 중 무늬가 없는 평직불은 8점이고 나머지는 紋織物이며, 紋織物종에서는 繡子織이 7점이고, 撫組織이 7점, 그리고 綾織이 5점이다. 문양은 卍字紋이 다른 부늬와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花紋, 복단문, 봉황문, 길상문 등이 있으며 魚紋도 한 점이 있다. 직물의 색상은 黃色, 青色, 赤土色, 暗綠色, 朱紅色, 黑色, 素色등으로 다양하여서 5방위에 해



〈그림 1〉 유물 #401의 빌원문

12) 許興植, 〈1302년 阿彌陀佛腹藏의 造成經緯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p.21

당하는 색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401의 발원문〈그림 1〉은 칠보문과 매화문, 연화문이 있는 青色으로, 조직은 5매2楞의 수자직이고, 밀도는 106×28(경사×위사 /cm)이다. 이 직물의 위사는 정련한 純絲를 사용하였고 경사는 生絲를 사용하여 직조한 후 후염을 한 것으로, 촉감이 까칠까칠한 느낌을 준다. 또한 식서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 쪽으로 길게 재단되어 있으며, 그 위에 붉은 글씨로 발원문이 적혀 있다.

다음의 (표 2)는 1431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이다.同一 직물로 만든 橘이나 金剛杵 등의 작은 직물들은 1種으로 취급하여 같은 번호로 정리하였다.

## 2) 1550년대의 직물

이 복장직물과 함께 발견된 한지에 적혀진 발원문에는 시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발원문종에 ‘宣宗判寧普雨’라는 기록이 있는데, ‘普雨’는 조선중기에 역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고승으로 그가 判事로 재직하던 기간이 1551년부터 1555년까지이므로 복장직물의 시기를 1550년경으로 추정한다.

1550년대의 직물에는 보자기가 3점을 비롯하여 모두 20점으로, 직물의 종류로는 麻가 1점, 緜이 1점이고 나머지는 絹이다. 이 중 무늬가 없는 평직물이 10점이고 紋織物중에서는 능직이 모두 8점인데 綾이 4점, 綺4점이며, 수자직은 2점이다.

직물의 색상은 다양한데, 벤이나 금강저 혹은 방경의 형태로서 5방위에 해당하는 색상의 직물이 포함되어 있다. 문양에서는 小花紋과 小回字紋이 많다.

#502 褐色綿은 유일한 면직물로 갈색의 紋織染織物이다.

직물번호 #509의 赤土色花紋綾은 밀도가 94×139(경사x위사 /cm)로서 본 논문에서 조사한 복장물 중에서는 가장 치밀한 직물이다.

1550년대의 직물중 원형의 직물에는 모두 벤어가 한자씩 적혀있으며, 〈표 3〉은 1550년대의 직물

을 정리한 것이다.

## 3) 1664년대의 직물

이 직물들과 같이 복장되었던 頤文에 적혀진 ‘康熙3年’은 慶宗5年으로 1664년이다. 1664년대의 직물은 모두 9점으로 紗이며, 이 중 4점은 紬이고, #609의 紫色小回字紋綺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직이다. #607은 밀도가 31×22(경사×위사 /cm)이며 담황색의 평직으로 직물의 종류로는 緜에 속한다. 幢, 金剛杵와 같은 직물로 구성된 작은 사각형에는 벤어가 한자씩 적혀있으며, 〈표 4〉는 1664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이다.

## 4) 1735년대의 직물

이 직물과 같이 복장 되었던 발원문에 적혀있는 ‘雍正十二’와 ‘乙卯 四月’에 奉安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英祖 11년의 1735년대의 직물임을 알 수 있다. 1735년대의 직물은 모두 6점으로서 #702는 평직의 마직물이고 나머지는 緜인데 #701, 704는 수자직이다.

#703은 무늬가 없는 흑갈색의 경3매능직으로 본 논문에서 조사한 직물들 중에서 폭이 47cm로 가장 넓고 길이도 104.5cm로 가장 긴다.

〈표 5〉는 1735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이다.

## 2. 織物의 組織 및 種類

본 논문에서 조사한 유물은 총 62점으로, 그 중 緜이 1 점이 있고 麻가 2 점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絹이다. 62점의 불복장 직물을 조직에 따라 평직, 능직, 악조직, 이중조직, 수자직으로 분류하였고, 조직별로 종류를 정리해 보면 평직에는 緜, 紬, 絹가 있으며, 綾織에는 綾, 綺가 있고, 掛組織에는 紗와 羅가 있으며, 二重組織에는 織金이 있고, 수자직에는 繖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물중 紗織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2〉 1431년대의 직물 고찰

직물 번호	직물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직	밀도 (경사×위사/cm)	규격 (가로×세로/cm)	비고
#401	青色七寶紋緞	직사각형 1	견	수자직 (5매2평)	106×28	19×16.5	발원문
#402	黃紬	정사각형 1	견	평직	24×24	38×32	보자기
#403	黃紬	정사각형 1	견	평직	38×39	38×36	보자기
#404	赤上色雲紋綾	직사각형 1	견	地一經3매 능직 紋--위6매 능직	76×47	37.5×32	보시기
#405	黑青色紺	사각형 1	견	평직	25×28	38×44	보자기
#406	朱紅收丹雲紋織金	직사각형 1	견	수자직 地~5매3평 紋~8매3평	88×28	5×27	
#407	素色卍字吉祥紋緞	삼각형 1	견	수자직 (5매2평)	94×28	4×19.5	
#408	黃金色牡丹紋紗	사각형 3	견	의조직 (二經綾)	31×16	17.5×12.5 17×14 16.5×13.5	
#409	暗綠色雲鶴紋紗	사각형 1	견	의조직 (二經綾)	28×25	32.7×10	
#410	黃色紺	사각형 1	견	평직	28×33	11.5×11.5	
#411	暗綠吉祥花紋緞	번2, 금강지1	견	수자직 (5매2평)	110×39	9×2.5 9.5×5.5 8×7.7	
#412	四色煉瓦紋緞	사각형 2 금강지 2	견	수자직 (5매2평)	110×38	12×11.5 7.5×2	
#413	黃金色寶相華紋紗	번6, 원형3 금강지 3	견	의조직 (二經綾)	17×20		
#414	黃色紺	사각형 1	견	평직	27×35	18.5×16.5	
#415	青色卍字菊唐草紋緞	사각형 1	견	수자직 (5매2평)	89×27	19×11.5	
#416	青卍字菊花紋綾	사각형 1	견	地一 위4매 능직 紋一 경4매 능직	101×28	7.5×5.5	
#417	青卍字小花紋綾	사각형 1	견	地一 위4매 능직 紋一 경4매 능직	89×28	15×9.5	목서
#418	紫色卍字小花吉祥紋 綾紺	사각형 1	견	지一 위4매 능직 紋一 경4매 능직	76×38	16×14	
#419	朱紅紺	삼각형 1	견	평직	30×38		
#420	黃色牡丹唐草紋羅	사각형 1 금강지 1	견	의조직 (四經綾)	101×25	14.5×13	
#421	赤上色綾	사각형 2	견	경3매능직	89×41	4×4.2 3.2×4.5	
#422	軟玉色魚紋紗	번6, 원형3	견	의조직 (二經綾)	28×19	10.5×6.5 1×4.5	목서
#423	赤上色紬	번 1	견	평직	29×19	9×5	
#424	黑色紺	직사각형 1 번4, 원형 1 금강지 2	견	평직	19×24	41×9	
#425	杏黃色卍格子花紋緞	사각형 1	견	수자직 (5매2평)	91×27	1×19.5	
#426	暗綠雲鶴紋紗	사각형 1	견	의조직 (二經綾)	28×25	24.5×17	
#427	青碧牡丹唐草紋紗	사각형 1	견	의조직 (二經綾)	31×28	30×16	

&lt;표 3&gt; 1550년대의 직물 고찰

직물 번호	직 물 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 직	밀도 (경사×위사/cm)	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501	暗綠小花紋綾	사각형 1	견	수자직 (5매2幅)	126×41	4.5×12	
#502	褐色絲	사각형 1	면	평직	13×16	15×17	
#503	黃色小回字紋綺	변 2, 원형 1	견	地-평직 紋-경4매 능직	50×35	3.7×4.2 2.5×4.2	북서
#504	黑消色卍字如意紋綾	변 1	견	地-경3매 능직 紋-위6매 능직	58×66	5.3×6.3	
#505	黑褐色綾	사각형 1	견	위3매 능직	80×44	19.8×3.3	
#506	暗綠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25×31	14.2×11.5	
#507	暗綠小花紋綾	변 1, 금강저 1	견	地-경3매 능직 紋-위6매 능직	76×52	4×5 7×2.3	
#508	暗綠小花紋綾	원형 1	견	지-경3매 능직 紋-위6매 능직	90×44	4.7(지름)	북서
#509	赤土色花紋綾	원형 1	견	수자직 (5매2幅)	94×139	3.9(지름)	북서
#510	黑朱紅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27×30	13.5×11	
#511	素色紬	사각형 1, 변 2 금강저 1, 원 1	견	평직	27×25	10×11.2	북서
#512	朱紅小回字紋綺	변 2, 금강저 1	견	지-평직 紋-경4매 능직	50×28	7.5×3.5 7.5×2	
#513	素色絹	사각형 1	견	평직	28×31	13×17.2	
#514	素色紬	변 2	견	평직	31×28		상태가 불량
#515	柳綠小回字紋綺	사각형 2	견	지-평직 紋-경4매 능직	47×21	12.5×12 4.3×10.5	북서
#516	朱紅小回字紋綺	사각형 2, 변 2 금강저 1	견	지-평직 紋-경4매 능직	47×24	12.5×12 4.3×10.5	북서
#517	褐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19×25	37×37	보자기
#518	褐色麻	사각형 1	마	평직	24×25	32×38.5	보자기
#519	褐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27×25	35.4×33.5	보자기
#520	素色紬	원형 1, 금강저 1	견	평직	22×16		상태가 불량

&lt;표 4&gt; 1664년대의 직물 고찰

직물 번호	직 물 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 직	밀도 (경사×위사/cm)	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601	黃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32×28	19×21.5	
#602	緇色紬	사각형 2, 변 2 금강저 1	견	평직	28×35	12.5×11	북서
#603	豆綠色紬	사각형 2, 변 2 금강저 1	견	평직	30×22	9×9.5	북서
#604	赤土色紬	사각형 2, 변 2 금강저 1	견	평직	27×25	13.5×5	북서
#605	黃色紬	사각형 2, 변 2 금강저 1	견	평직	31×47	13×11 3.8×10.4	북서
#606	紫色紬	사각형 3, 변 2 금강저 1	견	평직	47×36	3.3×17 3×13.5	북서
#607	淡黃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31×22	13.5×12	
#608	素色紬	사각형 1	견	평직	27×20	13×38	
#609	紫色小回字紋綺	사각형 2	견	지-평직 紋-경4매 능직	47×36	33×17 3×13.5	북서

〈표 5〉 1735년대의 직물 고찰

직물 번호	직 물 명	형태 및 수량	제료	조 직	밀도 (경사×위사/cm)	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701	暗綠鳳凰牧丹唐草紋綵	사각형 2	견	수자직 (5매2됨)	126×30	20×47.6	
#702	褐色麻	사각형 1	마	평직	18×19	35×20.5	
#703	黑綠色綾	사각형 1	견	경3매능직	76×38	47×104.5	
#704	暗綠七寶紋綵	사각형 1	견	수자직 (5매2됨)	118×28	24×23	
#705	黑紺色雲綾	사각형 1	견	地-경3매능직 紋-위6매능직	85×41	30.7×30	보자기
#706	黑綠色雲綾	사각형 1	견	地-경3매능직 紋-위6매능직	76×57	13.8×4	

## 1) 平 織

평직이란 직물조직 중에서 가장 간단한 조직으로,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조사한 직물들에서는 평직이 가장 많다.

## (1) 紬

‘綉’이라 하면 요즈음에는 모든 紉織物의 총칭으로 불리는데, 《三國史記》에는 신라에서 사용한 전으로서 色綉, 生綉, 緗細布등이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견은 일반 견직물의 총칭이라기 보다는 평직으로 짠 특정한 견직물의 일종이었다고 보기도 한다.<sup>13)</sup>

또한《釋名》에 ‘綉은 실이 굵고 성긴 것’<sup>14)</sup>이라고 하고, 《本草綱目》에는 ‘綉은 바탕이 거친 비단인데 익히지 않은 것은 생견이고, 익힌 것은 緉한 것이다’<sup>15)</sup>라고 하며, 《朝鮮服飾考》에는 ‘綉은 生綉이라고 해석되는 것’<sup>16)</sup>이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紌은 1431년대에 5점, 1550년대에 3점, 1664년대에 2점이 있다.

〈그림 2〉는 1431년대의 직물인 #419 朱紅綉을 30배 확대한 것이다.

## (2) 紬

‘紬’은 《說文》에 굵은 실로 짠 비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sup>17)</sup> 이 굵은 실(太絲)은 거친 질의 실을 말한다. 또한 《朝鮮服飾考》에는 ‘紬은 평견 보다는 가공을 한 것이며, 견은 生의 것이 많고 紌에는 緉한 것이 많다’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종류의 紌가 있는데 綿紬가 문헌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渤海國志長編》에 “綿布卽紬也”라고 되어 있으므로, 綿布란 목화에서 나온 석물성 섬유 목면이 아니고 견섬유를 말하는 것이다.<sup>18)</sup>

紬에는 품질이 우수한 朝霞紬, 魚牙紬가 있는데 《神壇民史》에는 朝霞紬, 魚牙紬가 佳品이라고 되어 있다.<sup>19)</sup> 빌해에서는 어아주, 조하주를 唐에 조공으로 받쳤다<sup>20)</sup>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에서도 聖德王때에 어아주, 조하주를 보냈고,<sup>21)</sup> 高句麗에서

13) 趙孝淑, 앞의 논문, pp.109~110

14) 《釋名》, 釋采帛 第14

15) 《本草綱目》, ‘綉疏帛生曰綉熟曰練’

16)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298

17) 《說文》, ‘紬 太絲繪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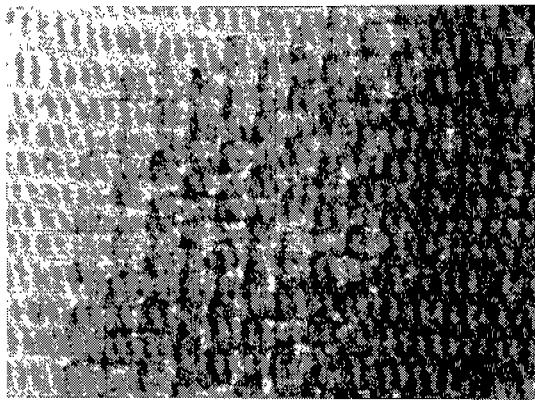
18) 趙孝淑, 앞의 논문, p.111

19) 《神壇民史》篇, 卷-- 第七章 風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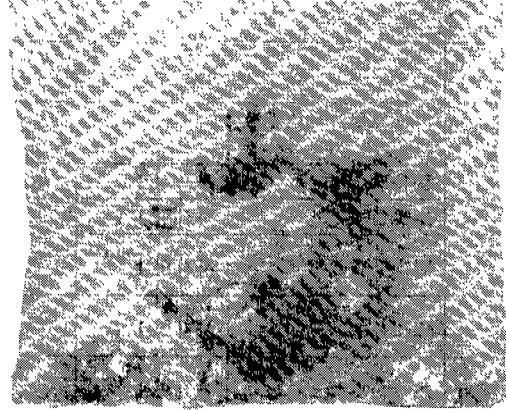
20) 《渤海國志長編》, 卷-- 總略上 天寶七載 二十九年 三月

《渤海國志長編》, 卷九 屬部表 第四

21) 《 삼국사기》 8권, 新羅本紀 第8, 聖德王條



&lt;그림 2&gt; #419의 30배 확대



&lt;그림 3&gt; #402 黃色紬

도 보냈으며, 高麗의 高宗때에 봉고의 사신이 紬 3천 필을 요구하여 가지고 돌아갔다<sup>22)</sup>고 한다. 또한 紬는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국지역에 多量이 보내졌으며, 各色綿紬, 白明紬, 白細綿紬등은 조선시대에 수없이 중국지역에 조공품으로 보냈다.<sup>23)</sup>

紬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전반적인 의복재료로서 사용되었는데, 《神璣民史》에 고려에서는 春夏에는 紵紗綿紬로서 衫과 袂을 만들이 많고, 또 冬에는 紵紗紬絹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4)</sup> 여기에서 말하는 紬絹은 絹紬 혹은 蘭紬(견주)를 일컫는 것으로서 絹紬는 멧누에 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비단으로<sup>25)</sup> 빛깔이 누르스름하고 약간 두꺼운 것이다. 이와 같이 紬는 거친 저급의 평직견으로부터 고급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용도에 따라 의복재료로서 폭넓게 사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견직물이다.

조선시대의 紬의 종류에는 紬, 吐紬, 鼎紬, 綿紬, 明紬, 水紬, 班紬, 生紬, 紡絲紬, 花紡紬, 三八

紬, 온류, 生鏡光紬, 十兩紬, 八兩紬, 六兩紬, 운류, 영류, 노방류, 원류, 즈으류, 숙류, 더류, 외단류등이 있다.<sup>26)</sup>

본 논문에서 조사한 紬는 1431년대에 3점, 1550년대에 5점, 1664년대에 5점이 있다.

<그림 2>는 1431년대의 직물인 #419 朱紅紬을 30배 확대한 것이며, <그림 3>은 1431년대의 직물인 #402로 황색의 紬로 만든 보자기인데 가운데에 방위를 표시하는 한자와 범어가 적혀있다.

### (3) 紬

‘紬’은 《說文》과 《玉篇》에 “生絲也”라고 되어 있으며, 《廣韻》에는 “生絲紬也”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生綿織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任大椿考》註에는 紬와 輕紬는 다른 것으로 輕紬는 紬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輕容과 비슷하며 輕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sup>27)</sup>

黃能馥의 《中國美術全集》에도 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거친 것은 漢代 《齊三服官》所產의 “素紬冬服”으로 冬服을 만드는 紬가 있으며 또

22) 《고려사》,世家 22권, 高宗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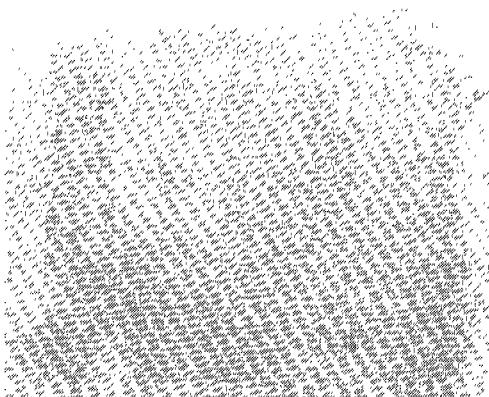
23) 関吉子, 〈織物의 種類에 관한 研究〉—古代로부터 조선시대까지—, 《教育論叢》제6집, 국민대학교 1986, p.115

24) 《神璣民史》, 卷三 第七章 風俗

25)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 p.31

26) 関吉子, 앞의 논문, p.117

27) 陣維稷, 《中國紡織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1984



〈그림 4〉 #607 淡黃色

다른 하나는 細한 것으로 안개와 같이 얇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이는 직조 기술의 극치라고 하였다.<sup>28)</sup>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製織했는데, 《三國遺事》에 細綃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sup>29)</sup> 고려시대 靖宗 9년에는 巾外에 生綃로 만든 의복을 禁한다.<sup>30)</sup>고 하였고, 조선시대 燕山君 때에는 儒生의 納의 交綺(무늬를 넣는 것)과 交織(두 가지 이상의 실을 겹쳐 짠 것)을 금하였다.<sup>31)</sup> 中宗 17년에도 禮曹에서 의 交綺·交織을 禁止·하자는 請願을 하고 있다.<sup>32)</sup> 또한 《受敎輯錄》에 庶民의 아내는 錦綃의 착용을 금한다.<sup>33)</sup>는 기록으로 보아 納에다 무늬를 넣은 화려한 종류의 錦綃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실물 중에는 紡가 한 점이 있는데, 1664년대의 직물인 #607이 淡黃色의 〈그림 4〉로서 밀도가 31×22(경사×위사 /cm)이며 얇고 가는 땅같이 보인다. 〈그림 5〉는 #607을 25배 확대한 것이다.

## 2) 縷 織

28) 趙孝淑, 앞의 논문, p112

29) 《三國遺事》, 1권, 延烏郎, 細鳥女條

30) 《增補文獻備考》, 卷八十一 禮考二十七 章服二

31)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4年 6月 庚辰

32)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8月 乙酉

33) 《受敎輯錄》, 卷之五, 刑典 禁制

〈그림 5〉 #607의 25배 확대

능직은 斜紋織이라고도 하는데, 경사 또는 위사가 누 올 또는 그 이상의 올과 up 또는 down으로 교차되어 능선(斜紋線이라고도 함)을 나타내는 조직이다. 능직은 평직에 비해 바닥이 치밀하며 단백성이 좋다.

능직에서는 능선이 左上에서 右下로 그어져 있는 것을 左綾이라 하고 그 반대인 것을 右綾이라 한다. 또한 능직은 분수로도 표시하는데, 경사가 위사의 위로 올라온 것(up)을 문자로, 아래로 내려간 것(down)을 분모로 표시한다. 즉 1/3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위사가 많이 떠 있으므로 縷綾이라고 하며, 3/1조직은 縷綾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직물들 중 능직은 3매, 4매 그리고 6매능직이 있으며, 1431년대에 5점, 1550년대에 3점, 1731년대에 2점이 있다.

이 중 #421과 #505, #703은 부늬가 없는 經3倍 능직이고, #421과 #703은 左綾이며 #505는 右綾이다.

#116, #417, #418은 바닥이 위1매능직(1/3)이고, 문양이 경4매능직(3/1)인데 #416은 右綾

이고 #417, #418은 左綾이다.

#404, #504, #507, #508, #705, #706은 바닥이 경3매능직(2/1)이고 문양은 위6매능직(1/5)으로 모두 左綾이다.

#503, #512, #515, #516, #609는 바닥은 평직이며 문양은 경4매직(2/1)으로 모두 右綾이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능직의 종류에는 綾과 緺가 있다.

#### (1) 綾

綾에 대해서 《說文》에는 ‘東齊에서는 포백의 올이 가는 것을 일러 綾이라 한다.<sup>34)</sup>고 하였으며, 《經典釋文》에는 ‘綾은 凌이라 하는데 이는 그 무늬가 얼음(冰凌)의 무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sup>35)</sup>라고 하였고, 《玉篇》에는 ‘무늬가 있는 것<sup>36)</sup>으로 기록되어 있어 綾은 무늬가 있는 견직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에서 归仁男女의 表衣(周衣일 것임), 內衣, 牛臂, 襪砌及 襪등에 綾을 사용하였으며 퍼의 懸에 까지 사용했던 만큼 그 용도는 광범하였다.<sup>37)</sup>

실물로서 남아있는 유물로는 신라시대의 고분인 경주 98호 고분에서 출토된 직물 중 은제합위의 섬유가 小紋綾이며 金製鎔帶에도 치밀한 능직물이 있었다.<sup>38)</sup> 또한 천마총이라고 불리는 155호 고분에서 섬유류가 출토되었는데, 馬具類인 중앙鞍轡과 남쪽 안장의 중앙부와 帶의 겉이 능직의 견으로서 중앙鞍轡과 帶의 겉은 경3매능직이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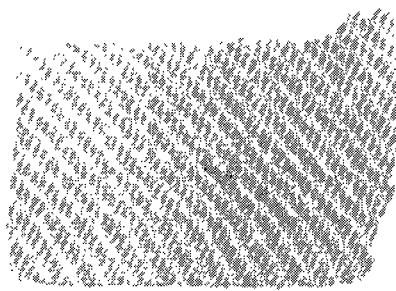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披庭局에 綾匠을 두어 綾을 製織하였으며,<sup>40)</sup> 生綾, 色綾, 色古綾, 色小綾, 白綾 등

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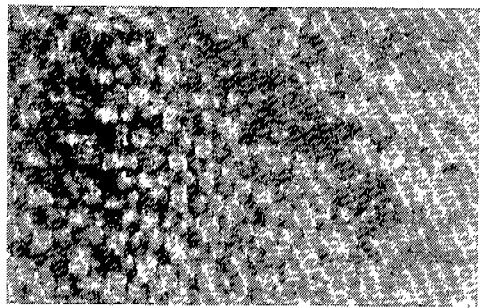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世宗 4년에 綾羅匠을 尚衣院에 이속시켜서 綾羅의 製織은 상의원에서 하게 되었으며,<sup>41)</sup> 품질도 철저히 관리하여서 낮은 질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工匠人 織匠과 引紋匠과 그 奉足人의 入任日을 삭제하였다.<sup>42)</sup>

조사한 유물에는 1431년대에 5점, 1550년대에 1점, 1735년대에 3점이 있다.

〈그림 6〉은 #417 青卍字小花紋綾絹으로 가운데에 둑서가 적혀 있으며, 〈그림 7〉은 #417을 25배 확대한 것으로 이 직물의 바닥은 위4매능직이며 문양은 경4매능직이다.



〈그림 6〉 #417 青卍字小花紋綾絹



〈그림 7〉 #417의 25배 확대

34) 《說文》, ‘東齊謂 布帛之細者曰綾’

35) 《經典釋文》, ‘綾凌也 基文望之如冰凌之理也’

36) 《玉篇》, ‘綾 紋綵’

37) 李如昱, 앞의 책, p.298

3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編, 《경주 황남동 제 98호 고분(南墳) 略報告》, 1976, p.24

39) 金相溶, 〈유물을 통하여 본 고대 纖維技術〉, 《織物検査》2권 2호, 한국직물감사소, 1974, p.1~4

40) 《高麗史》, 卷三十一

41) 《世宗實錄》卷18, 4年 10月 乙未條

42) 《大典綾錄》, 工典 雜令條

## (2) 綺

‘綺’는 《說文》에 ‘綺 文給也’라 하여 무늬가 있는 견직물을 뜻하며, 《六書故》에는 ‘染로 무늬를 제작한 것은 錦이라 하고 素로 제작한 것은 綺라 한다’고 하였으며,<sup>43)</sup> 漢書에서는 ‘綺는 紹樣이 있는 縫으로 즉, 지금의 紋綺이다’라고 하였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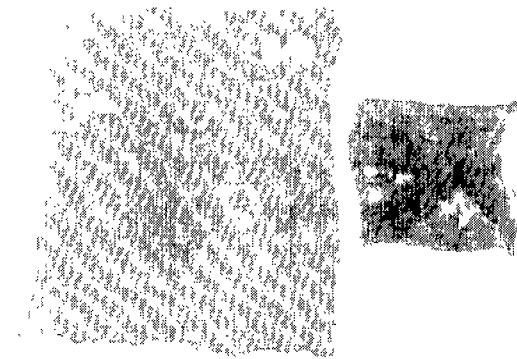
중국에서는 漢代에 평직의 바닥에 무늬가 있는 직물을 綺라고 하였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 와서 綺라는 명칭은 時文에서 가끔 보이는 것 외에는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綺의 이름은 뒤에 縫으로 대체되어서, 唐·宋시대에 와서는 일반적인 평직의 바닥의 紹織物은 모두 縫으로 불리게 되었다.<sup>45)</sup>

즉, 紋과 綺는 모두 무늬가 있는 직물이나 대개는 평직의 바닥에 능직의 무늬가 있는 것을 綺라고 하는데, 平地綾紋, 平地浮文일 경우가 많고 平地의 비율이 능직. 부직의 비율보다 많을 때에는 綺라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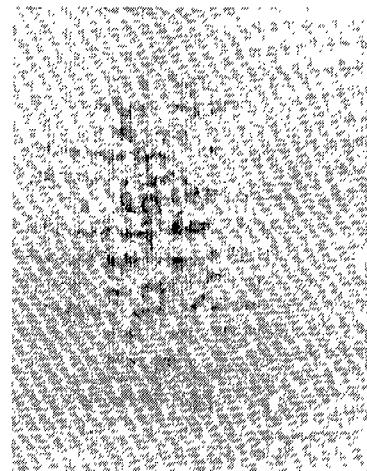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職官에 繡典을 따로 설치하여 綺를 제작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高麗史》에 綺를 제작하였다<sup>47)</sup>는 기록과 《東文選》에 色絲로 綺를 짜서 賞人士女들의 의복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高麗史》, 《高麗史節要》등의 문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왕이 綺를 하사하거나 또는 왕에게 진상하기도 하며 의복이나 교역품에도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다.<sup>48)</sup>

본 논문에서 조사한 유물 중에 綺는 1550년대에 4점, 1664년대에 1점이 있는데 모두 작은 回字의 문양이다.

〈그림 8〉은 1550년대의 직물인 #515 柳緣小回字紋綺의 모습이며, 〈그림 9〉는 #515를 20배 확



〈그림 8〉#515 柳緣小回紋綺



〈그림 9〉#515의  
20배 확대

대 한 것으로, 바닥은 평직이며 문양 부분은 경4매 능직으로 되어 있다.

## 3) 捩組織

익조직은 경사를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지 아니하고 바닥경사(ground warp)를 중심으로 하여 익경사(doup warp)가 좌우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위사와 교차하는 구조의 조직이다.<sup>49)</sup>

43) 《六書故》, ‘織采爲文口錦 織素爲文日錦’

44) 《漢書》, ‘綺文綺也 卽今之紺綺’

45) 趙豐, 《絲綢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 1992, p.37

46) 関吉子, 〈한국 전통직물의 역사와 종류〉,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p.191

47) 《高麗史》卷79, ‘基諸道錦綺雜織’

48) 趙孝謨, 앞의 논문, p.119

49) 金炳浩의 5人, 《직물구조학》, 협성출판사, 1994, p.8

의조직의 종류로는 紗와 羅가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紗와 羅의 명칭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중국, 일본의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sup>50)</sup> 일반적으로 紗는 2율의 경사가 교차되면서 위사가 교차되는 가운데로 위입되는 조직으로 마치 한 올의 굵은 경사처럼 보이는 직물을 말하며, 羅는 3, 4율의 경사가 교차되는 직물을 말한다.<sup>51)</sup>

본 논문에서 조사한 직물들 중에는 1431년대의 직물에서 익조직이 모두 7점이 있는데, 그 중 6점은 二經絞羅組織이며, 三經絞羅組織은 없고 #420 한 점만이 四經絞羅組織이다.

#### (1) 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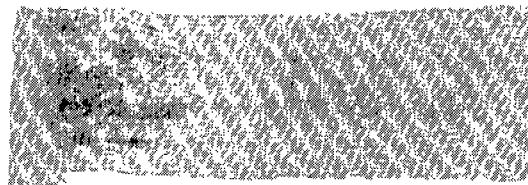
紗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신라에서는 冠帽에 사용하였고, 고려시대에는 紫紗, 白紗, 龍紗 등 色紗의 기록이 있는데 특히 紫紗는 중국에 공물로 보낸 기록이 있으며<sup>52)</sup> 조선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紗織物이 있다.

문헌에서는 고려까지는 羅의 기록이 많았다가 점차 쇠퇴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三, 四經絞羅組織인 羅에 대한 기록은 없어지고 二經絞羅組織인 紗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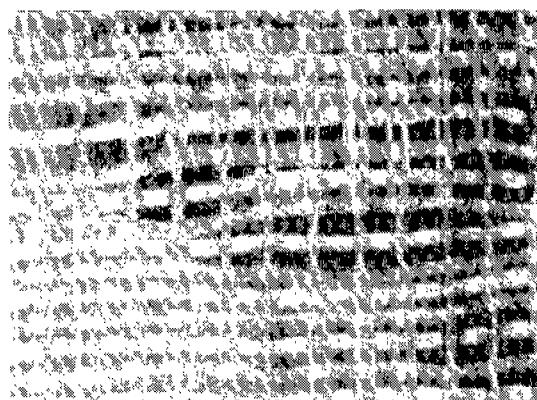
유물 중에 紗는 1431년대에 6점이 있으며, <그림 10>은 #409 柳綠雲鶴紋紗로서 밀도는  $28 \times 25$  (경사×위사 / cm)이다. <그림 11>은 #427인 青碧牧丹唐草紋紗를 15배 확대한 것이다.

#### (2) 羅

우리 나라에서는 낙랑 석암리 205호분 王肝墓에서 羅가 출토되었고,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직



<그림 10> #409 柳綠雲鶴紋紗



<그림 11> #427의 15배 확대

물 중에 四經絞의 羅가 나온 것으로 보아<sup>53)</sup> 이미 上代부터 발달되어왔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차차 三, 四經絞羅는 쇠퇴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는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羅는 樂浪郡의 王肝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原田淑人の 보고에 의하면 경사 124율, 위사 28율의 세밀한 직물인데 겹으로 三綾의 문양이 있는 四經絞羅組織이라고 한다.<sup>54)</sup>

50)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 III>—羅, 紗의 분류와 명칭 —

《教育論叢》14집, 국민대학교, 1994, p.113

趙孝淑, 앞의 논문, p.115~117

武敏, 《織繪》, 幼獅文化事業公司, 1992,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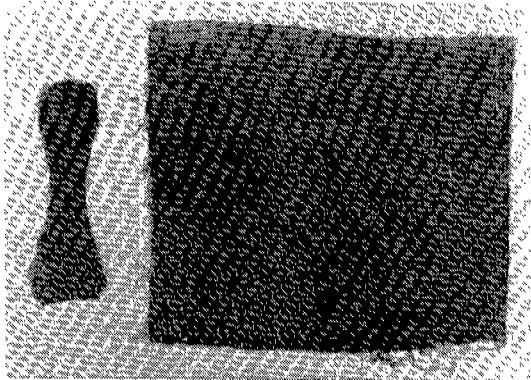
51) 閔吉子, 앞의 논문, 《教育論叢》14집, 1995, p.113

金美子, 趙孝淑, 앞의 논문, p.120

52) 閔吉子, <織物의 種類에 관한 研究>, 앞의 책, p.119

53) 趙孝淑, 앞의 논문, p.115

54) 鄭玩燮, <우리 나라 고대 견직물에 관한 연구>, 《關大論文集》제17집, 1989, p.101



〈그림 12〉 #420 黃色牧丹唐草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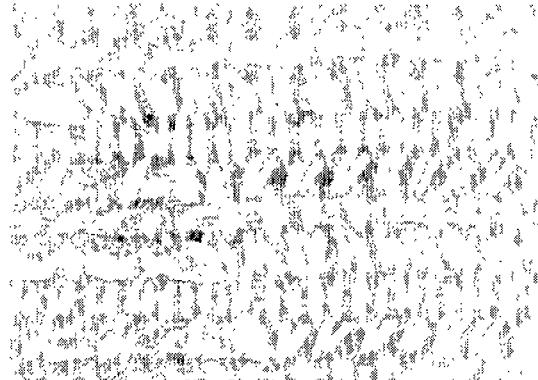
고구려에서는 왕은 白羅, 대신들은 靑羅, 絲羅로 冠을 만들어 썼다고 하며,<sup>55)</sup> 신라에서는 法興王 9년에 庫繡錦羅, 庫繡羅, 庫羅, 野草羅, 布紡羅, 庫羅를 禁하고 있으며,<sup>56)</sup> 興德王 9년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羅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sup>57)</sup>

이와 같이 많은 문헌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羅를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기록과 중국으로부터 사여 받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sup>58)</sup> 조선시대에는 羅에 관한 기록도 작고 紗에 비해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羿의 종류로는 兀羅, 生兀羅(唐兀羅), 銀羅, 秋羅, 숙향나가 있다.

〈그림 12〉는 #420 黃色牧丹唐草紋羅로서 유물 중에 유일한 4경교라조직의 직물이며, 〈그림 13〉은 #420을 25배 확대한 것이다.

#### 4) 二重組織

이중직물은 경사 또는 어느 한쪽이 이중으로 되어있거나 양쪽이 모두 이중으로 된 직물이다. 경사가 이중으로 되고 위사가 외겹으로 교차된 것을



〈그림 13〉 #420의 25배 확대

經二重織, 위사가 이중이 되고 경사가 외겹으로 교차된 것을 縱二重織이라 한다. 그리고 경, 위사 모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직물을 경위이중직 또는 이중직이라고 한다.<sup>59)</sup> 이중직물의 종류에는 錦과 織金이 있다.

##### (1) 織金

織金은 織金錦이라고도 하며, 별도의 경사나 위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넣은 이중직물이다. 일반적으로 錦은 각종 色絲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든 것을 말하며, 織金은 金絲, 銀絲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든 것을 말한다.

《本草綱目》에는 ‘錦은 오색 실로 짜서 文章을 만든다. 글자는 비단 吊자와 쇠금 자가 합쳐졌고 諧聲도 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錦이란 色絲로 무늬를 짠 화려한 직물로서 金과 같이 귀한 직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이 夫餘에서 외국에 나갈 때는 繪繡錦罽를 즐겨 입었다고 하며, 고구려에서도 公事로 모일 때의 의복은 모두 錦繡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다.<sup>60)</sup>

55)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志二 色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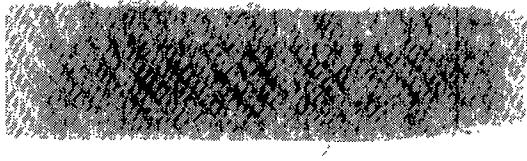
56)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志二 色服

57)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58)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新羅條

59) 金聲連, 《고려재료학》, 교문사, 1982, p.297

60) 《三國志》, 卷十三 東夷傳 第三十 夫餘, 高句麗



&lt;그림 14&gt; #406 朱紅牧丹雲紋織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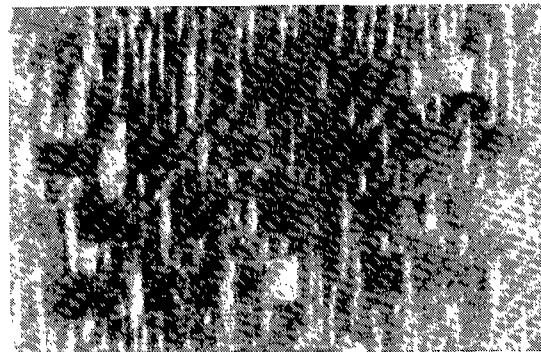
百濟는 國土所產이 대부분 고구려와 같은데 王은 裙에 青錦을 사용하였으며,<sup>61)</sup> 서기 463년에는 일본의 雄略天皇이 織造를 융성케 하기 위하여 백제의 우수한 職工을 데려다가 河內國 桃原에서 錦을 짜게 하였다. 後世에 上古의 錦을 河內錦이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며, 이들이 일본에서 짜낸 韓式 錦을 韓錦이라 했다.<sup>62)</sup>

新羅에서는 朝霞房에서 朝霞錦을 직조하였으며, 錦典에서는 大花魚牙錦, 小花魚牙錦등을 직조하였고, 景德王 때에는 錦典이 織金房으로 고쳐졌다가 다시 錦典이라 고쳤다.<sup>63)</sup>

高麗에서는 雜織署에 錦匠을 따로 두어서 錦을 제작하였으며,<sup>64)</sup> 領將軍, 左上將軍, 右上將軍등의 軍服에도 錦衣를 착용하였다.<sup>65)</sup>

朝鮮時代에는 太宗 3년에 錦繡綾羅의 사용을 금하며, 士族의 부녀는 錦繡의 착용을 금하는 등 계속하여 錦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織造件記》에는 織金, 大織, 膝襯이 各色各紋으로 제작된 사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431년대의 직물인 #406 한 점 만의 織金인데<그림 14>, 5매3幅의 수자직 주홍바



&lt;그림 15&gt; #406의 25배 확대

탁에 8매3幅으로 연꽃과 구름문양을 편금사로 직조한 것이며, <그림 15>는 #406을 25배 확대한 것이다.

### 5) 織子織

수자직은 朱子織이라고도 하는데, 경. 위사의 조직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고 이 조직점을 連接시키지 않고 분산시켰기 때문에 직물의 표면이 광택이 좋고 유연하다. 수자직은 완전조직의 최소단위가 경. 위사 각기 5율로 구성되며, 평직이나 능직은 조직점의 름수가 1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자직은 2 이상의 름수가 구성된다. 수자직의 직물에는 緞이 있다.

#### (1) 緞

緞은 수자직으로 제작된 견직물로, 기초직물 중 제일 늦게 나타난 것 중의 하나이다. 緞은 중국의 宋代 이전에서는 실물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緞이라는 명칭도 古代에서는 段이라 쓰여졌는데, 唐이전의 문헌에서는 직물의 계량단위로 많이 쓰여졌다.<sup>66)</sup>

우리 나라 문헌에 나와있는 緞에 대한 최초의

61) 《舊唐書》, 卷199 上列傳 제149, 東夷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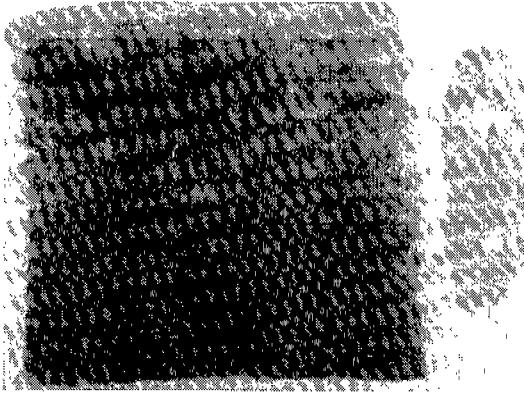
62) 李順燮, 〈古代 錦織文化의 研究〉, 《한양여전 논문집》제10집, 1987, p.446

63) 《三國史記》, 卷三十九, 雜志八, 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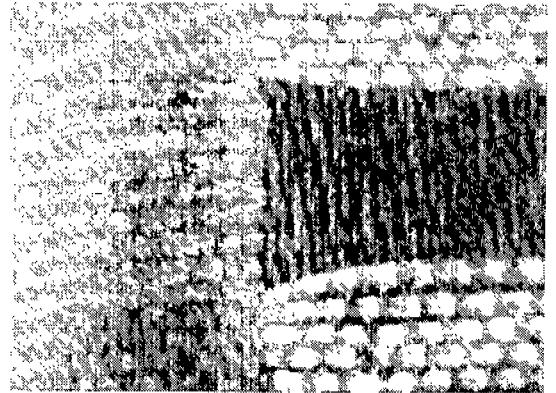
64) 《高麗史》, 世家 卷二 定宗 戊申 3年 九月

65) 《高麗史》, 卷二十六 輿服一 凡法駕衛仗, 上元然燈

66) 趙豐, 앞의 책, p.43



〈그림 16〉 #412 四色凍瓦紋緞



〈그림 17〉 #412의 25배 확대

기록은 《고려사》에 고려 惠宗 때에 晉에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緞’으로<sup>67)</sup> 다른 직물에 비해 늦게 나타난다.

고려의 공양왕 3년에 紗羅綾緞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sup>68)</sup>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sup>69)</sup> 成宗 6년에는 紗羅綾緞의 배제조차 금하고 있다.<sup>70)</sup> 반면에 세조 대에는 당상관들이 紗羅와 繡緞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고 단령은 그대로 국산 베를 착용하여서 衣錦尚絅(비단옷 위에 무명 덧옷을 입어 그 사치함을 가리는 것)을 했다

고도 한다.<sup>71)</sup>

본 논문에서 조사한 緞은 1431년대에 6점, 1550년대에 2점, 1735년대에 2점이 있는데, 〈그림 16〉은 1431년대의 유물인 #412 四色凍瓦紋緞으로서 붉은색 경사 바닥에 초록, 노랑과 흰색의 위사를 차례로 위입시키면서 5매 2필으로 제작한 화려한 색상의 緞이며, 〈그림 17〉은 #412를 25배 확대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조사한 불복장 직물을 組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조선시대 불복장들의 조직 및 종류별 분류

조직 및 종류 년대	平 織			綾 織		擗組織		二重組織	緜子織
	絹	紬	納	綾	綺	紗	羅	緞 金	緞
1431년	5	3		5		6	1	1	6
1550년	3	5		4	4				2
1664년	2	5	1		1				
1735년				3					2
합 계	10	13	1	12	5	6	1	1	10

67) 《高麗史》卷2 惠宗篇

68) 《增補文獻備考》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69)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4年, 中宗 3年, 11年, 12年, 14年, 35年, 明宗 7年, 8年, 12年, 純祖 12年

《父教輯錄》卷之五, 刑典 禁制

《增補文獻備考》卷之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衣服總論

《大東野乘》卷之五十五

70) 《朝鮮王朝實錄》成宗 6年 7月 甲子

71) 《大東野乘》卷之六, 青坡劇談

〈표 8〉 高麗時代 膜藏織物의 組織法

조직 출처	綾 織		撫組織			二重組織		緞子織
	綾	綺	二經紋織	三經紋織	四經紋織	錦	織金	緞
1302년 阿彌陀佛 腹藏織物	30	2	6	10	18	2	6	
長谷寺 鐵造藥師佛 腹藏織物	9		7		1		10	2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織物	9		4	1	1		3	
鳳樓里塔 腹藏織物						1		
합 계	50		48			3	19	2

다음의 〈표 8〉은 趙孝淑의 〈韓國 紗織物 研究〉에서 고려시대 견직률을 조직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표로 만든 고려시대 불복장물의 조직법<sup>72)</sup>이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조선시대의 직물과 고려시대직물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익조직은 1431년대의 유물에서만 보이는데 그 중 紗는 6 점인데 비하여 罷는 한 점만 있고, 또 한 문헌에서도 고려시대에는 罷에 대한 기록이 많았으나 조선 중기부터는 기록이 없어지고 紗에 대한 기록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罷는 고려시대 이후 점차 자취를 감추고 紗가 主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종조직에서 錦과 織金중에서 1431년대에 織金 한 점만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조사한 유물 중에서는 錦은 없다.

3) 수자직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물이 있다. 장곡사 복장직물에서 2점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는 다수의 緞이 나온 것으로 보아 고려 말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수자직의 제작이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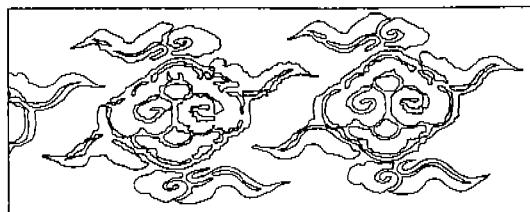
4) 직물의 폭을 보면 1302년 아미타불복장날의 직물은 47~60cm이고, 장곡사 복장직물의 폭은 53~62cm, 문수사 복장직물의 폭은 46~55cm이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조선시대의 직물의 폭은 대개 32~38cm이나 1741년대의 직물 한 점만이 47cm로, 직물의 폭을 비교해보면 고려시대에는 폭이 넓었다가 후기로 오면서 점차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紋樣의 種類

#### 1) 단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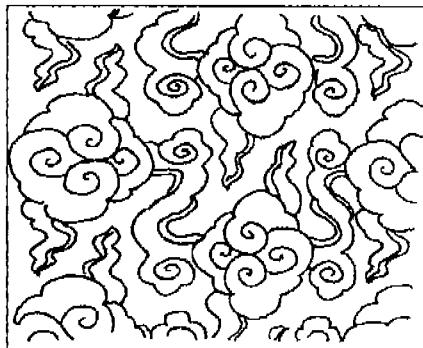
##### (1) 雲 紋

운문은 구름의 모양을 형상화시킨 문양으로, 본



〈그림 18〉 #404의 雲紋(1431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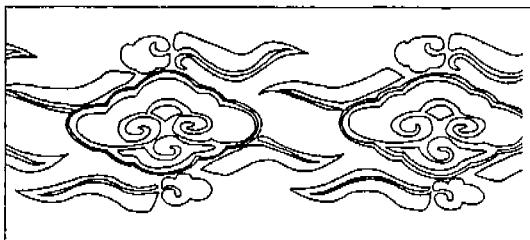
72) 趙孝淑, 앞의 논문,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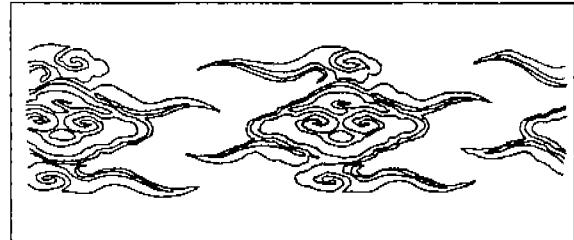
〈그림 19〉 흑석사 사리보의 운문(15세기)



〈그림 20〉 순천김씨 저고리의 雲紋(16세기)



〈그림 21〉 남양홍씨 바지의 雲紋(17세기)



〈그림 22〉 #705의 雲紋 (1735년대)

래 定形이 없고 그 大小와 形色이 모두 다르므로 雲紋에 일정한 모양이 있을 수가 없다. 雲紋이 단독으로 나타난 #404, #705, #706은 흘러가는 구름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卍자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무늬가 가로로 이어지며 위아래에 여백이 있고 다시 雲紋이 계속된다. 1431년대의 #404 赤土色雲紋綾絹〈그림 18〉은 雲頭가 가로로 길어서 놓통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1735년대의 #705, #706은 雲頭가 가늘어지고 꼬리 부분도 가늘어져서 1431년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세로로 가늘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9〉는 흑석사의 아비타불에서 나온 사리보의 운문인데 운무가 통통하며 꼬리 부분은 卍자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sup>73)</sup> 〈그림 20〉은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 김씨의 저고리(중요민속자료 제109호)로서 1530년 임진왜란 전의 의복으로 추정되는데 문양

이 #404와 흡사한 雲紋이다.<sup>74)</sup> 〈그림 21〉도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의 문양으로, 남양 홍씨(1655~1691)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중 겹바지의 부리 안쪽에 붙은 검은 형겼의 문양이며,<sup>75)</sup> 〈그림 22〉는 1735년대의 직물인 #705 黑甘色雲紋綾絹의 문양이다.

이와 같이 시대별로 단독 운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윤두의 형태가 후기로 내려올수록 가로로 점차 가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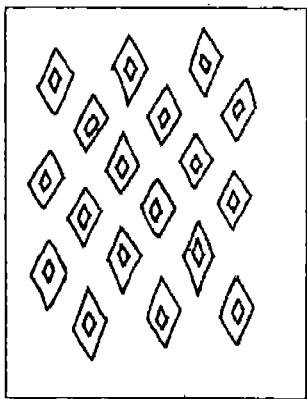
## (2) 回 紋

회문은 작은 '回'字가 마름모 형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문양을 말하는데, 1550년대의 직물에 색을 달리한 비슷한 문양의 직물이 4점이 있고 1664년대에 1점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조사한 綺는 모두 단독 小回字紋이다. 〈그

73) 金英淑, 《朝鮮前期 佛腹藏織物의 理解》, 미술문화, 1997, pp.28~29

74)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p.94

75) 金明淑, 《洪禹協 葬出土: 17세기 服飾論叢》,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p.87



〈그림 23〉 #515 小回字紋

림 23〉은 #515 柳綠小回字紋綺의 문양인데, 回字가 단독으로 대각선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 (3) 寶相華紋

우리 나라에는 고구려, 백제에서는 보상화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sup>76)</sup> 불교의 전성기인 통일신라시대에 보상화문이 성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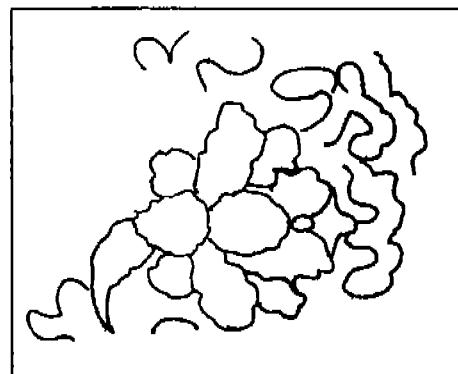
유물에서는 1431년대의 직물인 #413〈그림 24〉 한 절만이 보상화의 문양을 보여주는데, 위낙 직물의 크기도 작고 상태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나, 가는 선으로 보상화가 紋織된 것으로 본다.

## 2) 複合紋

### (1) 蓮花雲紋

#406 朱紅蓮花雲紋織金〈그림 25〉에 나타난 구름의 모습은 꼬리 부분이 卍字의 형태로 길게 연결되어 있고 여백에는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26〉은 남양 홍씨의 담호의 문양인데<sup>77)</sup> 운문이 S자의 형태로 길게 연결되어 되고 여백에는 철보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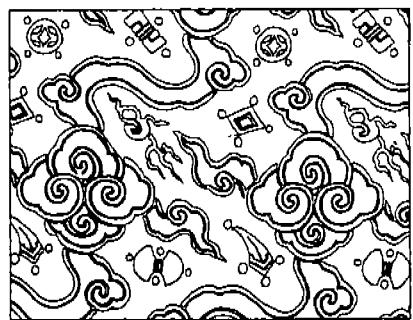
현재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전주 이씨 탐릉군(1636~1731년)의 철릭<sup>78)</sup>과 조선조 말기의 의복으로 예지현에 소장되어 있는 고종 황제의 용포와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연두색



〈그림 24〉 #413 寶相華紋



〈그림 25〉 #406 雲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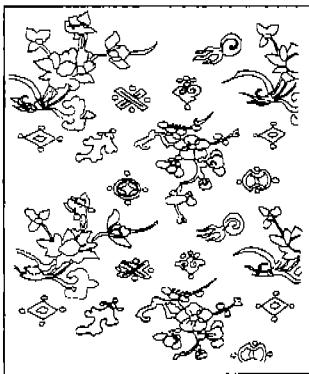


〈그림 26〉 남양홍씨 담호의 雲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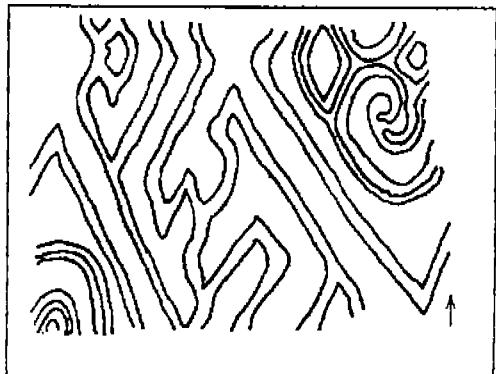
76) 黃汝根, 《韓國文樣史》, 1994, p.74

77) 金明淑, 앞의 책, p.111

78) 《한국복식2천년》,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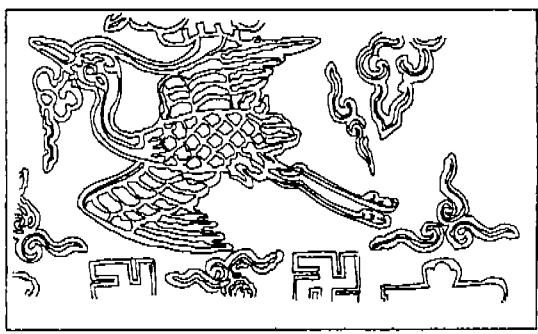
〈그림 27〉 #401 七寶紋



〈그림 28〉 #504 如意紋



〈그림 29〉 #701 凤凰牡丹唐草紋



〈그림 30〉 #409 雲鶴紋

원삼<sup>79)</sup>에서도 〈그림 26〉과 유사한 雲紋이 있으며 모두 다 여백에는 칠보문이 있다.

### (2) 七寶紋

유물에는 칠보문이 2점이 있는데, 1431년대의 반원분인 #401과 1735년대의 직물인 #704 暗綠色七寶紋綢이다.

#401의 말원문(그림 27)에는 전보, 특경보, 산호, 서각보, 쭈등의 칠보문이 매화, 연꽃과 산재되어 있는 형이며 여백이 많고, #704는 #401과 비교했을 때에 七寶 중 산호가 빠진 6가지의 寶物이 있으며, 꽃의 크기가 #401보다 작다.

### (3) 如意紋

여의의 형태는 통일신라시대에 불교적인 장식에서 유행되었던 보상화 무늬와 寶雲 무늬에서 같

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이후로 본다.<sup>80)</sup>

유물에서는 #504 한 점이 있는데, 기하문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28〉

### (4) 凤凰牡丹唐草紋

〈그림 29〉은 #701 凤凰牡丹唐草紋으로 목단당초문의 사이에 봉황이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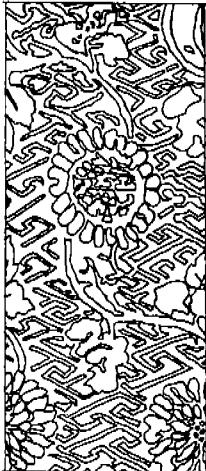
### (5) 雲鶴紋

〈그림 30〉은 #409 暗綠雲鶴紋紗로서 학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 입에 여의주를 풀고 있으며 卍字, 구름 문양이 연결되어 있다.

### (6) 卍字紋

유물에서는 1431년대의 직물에 6점, 1550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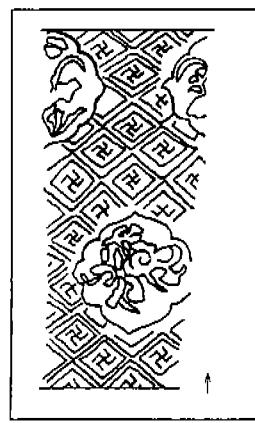
79) 崔玉子, 〈실물로 본 色彩와 무늬(紋)의 고찰〉, 《服飾》 창간호, 1977, p.13  
80) 《한국문양》,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1,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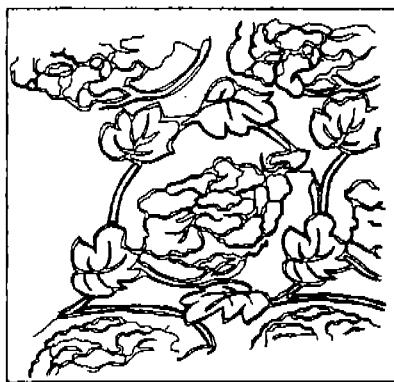
〈그림31〉  
#415 卐字菊  
唐草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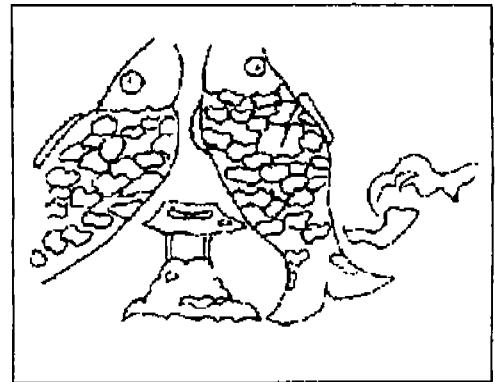
〈그림32〉 #416 卐字菊蓮花紋



〈그림33〉 #425 卐字格子花紋



〈그림 34〉 #427 牧丹唐草紋



〈그림 35〉 #422 魚紋

직물에 1점이 있는데, 대개가 卐字가 地紋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 사이에 난초, 국화, 길상문, 연꽃무늬가 복합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415〈그림 31〉은 卐字에 국화와 난초가 길게 배치되어 있고, #416〈그림 32〉는 국화와 蓮花가 어우러져 있으며, #425〈그림 33〉은 작은 격자형 卐字紋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小花紋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7) 牡丹唐草紋

유물에서는 1431년대의 직물에는 #420과 #427의 두 점이 있고, 1735년대의 직물에는 #701 한 점이 있다. 〈그림 34〉는 #427의 문양으로 목단이 난초무늬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 (8) 魚 紋

유물에서는 #422 軟玉色魚紋紗 한 점이 있는데 〈그림 35〉, 한 쌍의 물고기가 서로 마주 보는 모습이며 그 아래에는 樓閣의 부늬가 있는데, 아마 龍宮을 뜻하는 것 같다.

유물에서 조사한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독문으로는 雲紋, 回字紋, 寶相華紋이 있고, 복합문에는 雲紋, 七寶紋, 如意紋, 凤凰紋, 鶴紋, 卐字紋, 牡丹紋, 唐草紋, 魚紋이 있으며, 단독문보다는 복합문이 많다.

2) 卐字紋, 寶相華, 如意紋등의 불교와 관련된 문양이 초기에 많이 보이는데, 조선의 抑佛崇儒 정책이 문양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 많은 유물과 비교, 고찰한 후에야 확실

해 질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IV. 結 論

조선시대의 불복장 직물 62점의 실물과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조선시대 직물의 특징과 문양표현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물에서 緺이 主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 가능한 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 組織에 있어서 組織 가운데 四經綃羅組織인 羅는 고려시대의 직물에서는 보이나, 조선시대에는 1431년대의 직물에서만 한 점이 있어 조선초기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조직에서 錦은 조사한 유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다른 문헌과 비교하였을 때 고려시대부터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자직은 고려말기부터 製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수자직의 제작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직물의 폭을 보면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직물은 47~60cm이고, 장곡사 복장직물의 폭은 53~62cm, 문수사 복장직물의 폭은 46~55cm이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조선시대의 직물의 폭은 대개 32~38cm로, 직물의 폭을 비교해보면 고려시대에는 광폭이었다가 후기로 오면서 점차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문양에 있어서는 단독문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이 섞여진 복합문양이 많다.

卍字形・寶相華紋・如意紋등의 불교와 관련된 문양이 1431년대의 직물에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직물에 관해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았는데, 염색에 관한 부분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古書〉

- 《高麗史》
- 《大東野乘》
- 《本草綱目》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釋名》
- 《受敎輯錄》
- 《神壇民史》
- 《新唐書》
- 《六書故》
- 《朝鮮王朝實錄》
- 《增補文獻備考》

#### 〈一般書〉

- 金美子·趙孝淑, <1302년 아미타불복장의 양식과 특성>,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金明淑, 《洪禹協 墓 出土 17세기 服飾論攷》, 충북대학교박물관, 1933
- 金相溶, <遺物을 통하여 본 고대 섬유기술>, 《직물검사》2권 2호, 한국직물검사소 1974
- 金聲連, 《피복재료학》, 교문사, 1982
- 金英淑, 《韓國服飾史 辭典》, 民文庫, 1988
- \_\_\_\_\_, <조선조 전기 직물의 한 양상>, 《문화제》, 1994
- \_\_\_\_\_, <조선조 불복장직물의 이해>, 미술문화, 1997
- 金英淑編, 《韓國服飾史資料選集》一上古·高麗編一, 민족문화사, 1985
-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 공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편, 1976
- \_\_\_\_\_, 〈경주 황남동 제98호 고분 보고서〉, 1976
- 閔吉子, 〈한국전통직물의 역사와 종류〉,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 \_\_\_\_\_, 〈織物의 種類에 관한 研究〉—古代에서 朝鮮時代까지—, 《教育論叢》6집, 국민대학교, 1986
- \_\_\_\_\_, 〈한국전통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錦綺의 組織的 分類와 命名—, 《教育論叢》10집, 1990, 국민대학교
- \_\_\_\_\_, 〈韓國傳統織物의 組織에 대한 考察—羅·紗의 分類와 命名—, 《教育論叢》14집, 국민대학교, 1995
- 박경원·정원경, 〈永泰二年 명납석제대〉, 부산 시립박물관 연보, 1983
- 裴永東, 〈佛腹藏樣式의 構成과 意味〉, 《1302年 阿彌陀佛 腹藏物의 調查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손경자·金英淑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교문사, 1982
- 安明淑, 〈문수사 유물 포와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柳喜卿, 〈1302년 아미타불 복식의 양식과 특성〉,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查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李順燮, 〈古代 錦織文化의 研究〉, 《한양여전논문집》10집, 1987
- 李如星, 《조선복식고》, 백양당, 1947
- 張炳浩 외 5人, 《직물구조학》, 형설출판사, 1994
- 鄭玩燮, 〈우리 나라 고대 견직물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제17집, 1989
- 趙孝淑, 〈韓國 絹織物 研究〉—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 최옥자,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 《服飾》창간호, 1977
- 許興植, 〈1302년 阿彌陀佛腹藏의 造成經緯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查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黃汎根, 《韓國文樣史》, 열화당, 1994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문양》, 1991
- 陳維稷, 《中國紡織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1984
- 武敏, 《織繡》, 幼獅文化事業公司, 1992
- 趙豐, 《絲綢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Chosun Dynasty's Fabric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s( I )

The kind, the structure, and the motif of the Chosun dynasty's fabrics found mainly within the Buddhist statues were studied. The total of 62 pieces of fabrics can be classified chronologically as follows : 27 pieces in the year of 1431, 20 pieces of 1550, 9 pieces of 1664, and 6 pieces of 1735. These 62 fabrics also categorized by the weaving method as follows : 27 plain weaved, 17 twill weaved, 10 pieces of satine weaved, 7 pieces of Leno weaved, and 1 piece of double weaved fabrics.

Most of the studied fabrics were silk, the rest were 2 pieces of yam and 1 piece of cotton. Kyun(絹), Chu(紬), and Cho(綃) were the plain weaved silk as Nung(綾) and Ki(綺) were the twill weaved silk. Satine weaved silk was called as Dan(緞) and double weaved silk was called Chikum(織金) in the Chosun dynasty.

1. The antique fabrics were composed of mainly silk. This is believed due to the utmost devotion to the buddhist statue as an object of worship.

2. In the fabric's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crossed 4-ply threads of warp yarn which is one of Leno weaved can be observed frequently in the period of Korea dynasty's fabrics. But it started to disappear in the be-

ginning of Chosun dynasty, since only one piece of Ra(羅) could be found in the 1431's fabrics. Keum(錦), one of the double weaved structure is assumed to be extinct from the Korea dynasty. Satin weaved fabrics started to be woven from the latter period of Korea dynasty and was very popular in Chosun dynasty.

3. The widths of fabrics in the Chosun dynasty gradually decreased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dynasty.

4. Composite motif were popular than a single motif in the studied fabrics. The cloud motif of the beginning of Chosun dynasty, which was used as a single motif, had a plum shape where the head part of the could is long in vertical direction.

The motifs such as Man(卍), Bosanghwa(寶相花紋), Yeo-Eui(如意紋)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buddhism were relatively abundant in the fabrics of 1431.